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 Holy Love Ministries —



하느님 아버지의 **십계명** 해설

십 계 명

(탈출기 20:1-17)

그때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삼 대 사 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옛세 동안 일하면서 네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네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옛세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목 차

소 개	5
제 1 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송하여라	6
제 2 계명: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6
제 3 계명: 주일(Sabbath Day)을 거룩히 지내라	7
제 4 계명: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8
제 5 계명: 사람을 죽이지 마라	8
제 6 계명: 간음하지 마라	9
제 7 계명: 도둑질을 하지 마라	9
제 8 계명: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10
제 9 계명: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제 10 계명: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11
결 론	12

2001년 7월 23일 / 모독 행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모독 행위에 대해 말하기 위해 왔다. 너희가 어떤 것을 모독한다는 것은 그것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그것을 모욕하거나, 그것을 전혀 의도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하느님의 이름뿐 아니라 많은 것들이 모독되고 있다. 성체 안의 나의 실재적 현존은 대죄의 상태에서 부당하게 나를 받아 모시는 이들에 의해 매일, 매시간마다 모독을 당하고 있다. 나의 실재적 현존에 대한 이보다는 조금 덜한 모독 행위는 미사 전과 미사 후에 나를 무시하면서 내 앞에서 즉석에서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태도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인간 생명은 낙태와 산아 제한, 과학 연구 등을 통해 모독되고 있다. 정숙의 덕은 사람들이 순결을 중히 여기지 않은 채 유행에 따라 옷을 입을 때 모독된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교회에도 매우 단정치 못한 옷차림으로 온다. 안식일은 너희가 이 날을 주님의 날 곧, 예배의 날이자 가족 활동의 날로 지내지 않을 때 모독된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쇼핑이나 집안일은 주중의 나머지 6일로 미뤄져야 한다. 또한 의료 서비스에 관련된 업체가 아니라면 모든 사업체도 이렛날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가족 간에 서로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안식일을 사용하여라.”

“내 어머니의 성심은 여러가지 모독 행위 때문에 매우 슬퍼하신다. 어머니께서는 사람들이 이 죄들을 인식하고 또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은총을 쏟아 부어주고 계신다. 나는 사람들의 회심을 위한 특별한 은총과 함께 어머니를 세상의 몇몇 특정한 장소로 보내드리면서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고 있다. 이 성지는 오늘날의 세상에 대해 천상이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위대한 표징이다.”

“이것을 널리 알려라.”

하느님 아버지의 십계명 해설

소 개

저는 (모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2021년 6월 24일

“너희의 사랑 가득한 아버지로서, 나는 천국으로 가는 지침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너희가 좀 더 잘 이해하기를 바란다. 이 십계명은 거룩한 사랑으로 구현된다. 곧, 만유 위에 나를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단지 이 계명들을 알고 있거나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희는 반드시 이 계명들을 내면화하고, 단순함 가운데 이 계명들이 명하는 모든 것을 습득해야 한다. 첫 세 계명은 만유 위에 나를 사랑하기를 명한다. 제 4 계명부터 제 10 계명까지는 영혼이 어떻게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만 하는지를 알려준다.”

“나는 이 율법이 너희의 일상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너희가 깨닫도록 너희에게 이 율법을 자세히 분석해 주고자 한다. 그러면 너희는 좀 더 잘 나의 계명들에 따라 살고 천국에서 너희의 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장 큰 계명 (마태 22:34-40)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 제 1 계명 -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송하여라.

“거룩한 사랑은 모든 계명들의 구현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면서 오늘은 제 1 계명부터 시작해 보자. 제 1 계명은 너희가 반드시 나를 만물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내 앞에서 다른 거짓 신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령한다. 이것은 거짓 신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나에 대한 사랑보다 더 앞세운다. 이것들은 개인적 안락이나 결혼, 부, 감각적인 욕망, 명예, 엔터테인먼트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짓 신들이다. 사람이나 장소나 물건 등 영혼이 나에게서 나온 은총으로 여기지 않는 모든 것은 그의 영 안에서 거짓 신으로 자리 잡는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나 의도적으로나 모든 선을 인간의 노력의 공으로 돌리면 안된다. 이것은 인간의 업적을 그의 창조주 위에 두는 것이며, 창조주의 전능을 인간의 것으로 만드는 셈이다. 모든 인간의 노력이나 위업은 나의 부성적 성심으로부터 비롯된다. 모든 인간의 노력은 인류를 위한 나의 부성적 보살핌의 열매다.” (하느님 아버지 / 2021년 6월 24일)

+ 성경 구절 독서 (마태 22:34-40)

- 제 2 계명 -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자녀들아, 나는 계명들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겠다. 이것은 오늘날 나의 율법에 대한 경시가 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세상에는 전반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려는 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의 지극히 거룩한 이름과 내 아들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속어로 전락하였다. 제 2 계명은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분명히 명시한다. 그러나 오늘날 일반적인 관습은 놀라움이나 불신, 또는 분노를 표현하는 데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이 법을 모독한다.* 나의 이름이나 내 아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의 마음속 동기는 경외와 존경을 표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 사악한 시대에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나에 대한 존경심이나 경외심이 거의 없다.”

“모든 계명 하나하나의 깊은 이해를 요구한다. 계명들은 단지 표면적인 수준에서 요약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각 영혼은 그 이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나를 안다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나의 계명들을 알고, 또 이해하

지 않고서는 영혼은 나를 사랑하지도, 또 알 수도 없다.” (하느님 아버지 / 2021년 6월 25일)

+ 성경 구절 독서 (마태 22:34-40)

* 역주: 미국에서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Oh My God’ 나 ‘Jesus Christ’ 가 ‘세상에’, ‘이럴수가’, ‘맙소사’ 등의 감탄사로 굉장히 많이 쓰이며, 심지어는 ‘빌어먹을’ 같은 욕설적 의미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제 3 계명 -

주일 (Sabbath Day) 을 거룩히 지내라.

“너희는 ‘주일을 거룩히 지내야 함’을 명심하여라. 이것이 나의 제 3 계명이다. 이 율법은 영혼이 일요일에 어떠한 불필요한 일이나 활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한다. 불필요한 일이란 다른 날까지 기다렸다가 할 수 있는 일을 말한다. 영혼은 다른 이들이 안식일에 일하게 만드는 어떠한 활동도 하면 안된다. 이 날은 반드시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이렛날 쉬었던 것을 본받아 휴식을 취하는 날로 기념되어야 한다.”

“필요한 활동이란 아픈 이들이나 장애가 있는 이들을 돌보아 주거나 어려운 이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일, 또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을 구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 감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보살피는 일 등을 말한다. 안식일은 나를 사랑하고 찬미하는 이의 마음속에서 영성을 기르는 데 바쳐져야 한다.” (하느님 아버지 / 2021년 6월 26일)

+ 성경 구절 독서 (마태 22:34-40)

* 안식일: 성경의 첫머리에 묘사되었던 안식일(Sabbath, 오늘날의 토요일), 또는 하느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 사업을 마치고 쉬셨던 ‘제 7일’. 창조 사업은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로 지내야 하는 안식일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었다. 제 7일, 또는 안식일에 첫 번째 창조 사업이 완성되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제 8일’ 곧,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주간 첫째날인 일요일을 ‘새로운 창조 사업’이 시작되었던 ‘거룩한 날’로 지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주님의 날, 주일主日)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이행하는 것이다.

- 가톨릭 교리서 / 용어 사전

- 제 4 계명 -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자녀들아, 계명들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아름다운 꽃밭을 지나가면서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려고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과 같다. 꽃향기를 맡고,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창조물 속 깊이 내재하는 나의 손길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 계명들도 이와 매우 비슷하다. 그저 이 계명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의 보다 깊은 의미를 음미해야 한다.”

“제 4 계명은 ‘부모에게 효도하여라’고 명한다. 이 효도는 내가 너희 부모에게 위탁한 역할에 대한 깊은 감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너희는 그들의 자녀이기에, 자식에 대한 그들의 친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너희의 부모가 나이가 들면, 너희는 그들의 육체적, 감정적 복지를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책임들을 회피하는 것은 곧 제 4 계명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

“너희의 부모가 노년에 이르면, 너희는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 모든 부모가 훌륭한 부모의 역할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들을 너희의 부모로 선택했으므로, 너희는 그들을 너희의 부모로 받아들여야 한다. 너희가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면, 너희는 나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 / 2021년 6월 27일)

+ 성경 구절 독서 (마태 22:34-40)

- 제 5 계명 - 사람을 죽이지 마라.

“제 5 계명은 ‘사람을 죽이지 마라’이다. 요즘 시대에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이 계명을 위반하고 있다.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어떤 것이든 제 5 계명을 모독하는 것이다. 낙태 산업 전체가 바로 이 계명의 위반을 중심으로 생겨났다. 이것은 줄기 세포 채취 및 사용도 포함된다. 이 외에도 안락사의 수용과 자살도 있다. 나는 주님이며 생명을 주는 이다. 오직 나만이 생명을 나에게로 (다시) 불러들이는 이가 되어야 한다.”

“이 계명에 대한 무시는 도덕을 최저점으로 끌어내렸다. 도덕의 타락은 나라의 전반적인 복지를 위협한다. 그래서 유례없는 대기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다. 기본적인 생명권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인간의 생명은 잉태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이 계명의 위반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려고 하는 인간의 헛된 시도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나의 뜻을 받아들이는 행위는 이런 태도를 방지한다. 나의 뜻은 모든 계명들의 기초이자 토대다.”
(하느님 아버지 / 2021년 6월 28일)

+ 성경 구절 독서 (마태 22:34-40)

- 제 6 계명 - 간음하지 마라.

“다른 모든 계명과 모든 죄와 마찬가지로, 의로움을 위반하는 데 동의하는 것은 먼저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제 6 계명 - ‘간음하지 마라’ - 도 이 규칙에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 죄는 보통 두 사람의 동의를 요구하는데, 육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지 않고 오직 마음으로만 이 죄를 지을 수도 있다.”

“나는 인간이 아이를 낳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 성(性)을 창조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마음의 순결을 침해하는 혼외 행위나 생각은 - 만약 그것에 동의한다면 - 모두 죄가 된다. 오늘날의 세상은 성적 자극을 자유로운 선택으로 격화시켜 모든 이가 혼인 여부에 관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성적 향락은 엔터테인먼트와 광고, 의류 디자인 등의 도구가 되었다. 이는 인간이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자신의 즐거움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나에 대한 사랑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너희 삶의 중심으로 삼아라. 그러면 어떤 죄도 너희 영성에 해를 끼치거나 너희 영원한 목적지를 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 / 2021년 6월 29일)

+ 성경 구절 독서 (마태 22:34-40)

- 제 7 계명 - 도둑질을 하지 마라.

“제 7 계명 - ‘도둑질을 하지 마라’ - 또한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무질서한 자

기만을 위한 사랑을 통해 위반된다. 이 계명을 모독하는 영혼은 나의 뜻보다 자기 자신을 앞세운다. 영혼은 정당하게 자신의 것과 정당하게 다른 이에게 속하는 것, 그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자신이 가져서는 안되는 것을 빼앗는 것이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예에도 적용된다. 영혼이 다른 사람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할 때, 그는 그 사람의 명예를 빼앗는 것이다.”

“영혼은 또한 말이나 행위로 다른 이들에게 믿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을 때도 이 계명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는 다른 이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작은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더 크고 더 엄청난 것을 도둑질하도록 마음을 부추긴다. 물론, 모든 절도 행위를 격려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다.” (하느님 아버지 / 2021년 6월 30일)

+ 성경 구절 독서 (마태 22:34-40)

- 제 8 계명 -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오늘은 제 8 계명,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에 대해 말해보자. 중상과 비방의 죄가 이 계명을 모독한다. 진리에 봉헌되지 않은 영혼은 이 여덟 번째 계명을 거스른다. 그의 마음은 무자비하며, 그의 말투 또한 그것을 똑같이 재현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영혼들과 사회와 나라가 거짓을 말하는 혀로 인해 파괴되었다.”

“거룩한 사랑이 반드시 마음을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말 속의 진리가 보존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영혼은 사랑 없이 말하도록 유혹 받지 않는다. 제 8 계명을 위반하게 되는 영혼은 진리를 깨달아야만 회개할 수 있다.” (하느님 아버지 / 2021년 7월 1일)

+ 성경 구절 독서 (야고 3:7-10, 마태 22:34-40)

- 제 9 계명 -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마음은 영혼의 ‘방향키’와 같다. 그것이 어디론가 향하면, 영혼도 따라 간다. 다 음 계명 -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 도 다른 모든 계명과 마찬가지로 율법이 며, 마음으로 먼저 순종해야만 한다. 영혼은 모든 부부의 결혼 서약을 항상 존중 하면서 다른 이의 아내를 부러워하는 것을 조심하고 또 피해야만 한다. 오늘날 의 사회에서 결혼은 중요한 제도가 아니다. 많은 커플들이 심지어 같이 살기 전 에 결혼식도 올리지 않는다. 결혼을 하는 이들도 결혼을 앞으로의 욕망에 대한 지 침으로 삼지 않는다. 이런 이들에게 결혼은 시샘에서 비롯된 욕망에 아무런 장 애가 되지 않는다.”

“이 계명을 거스르는 사람들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관해서 양심의 가 책을 느끼지 않는다. 이것은 현대 통신 수단은 물론 엔터테인먼트와 의복, 문학 등 에 의해 부추겨진다. 영혼은 이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길에 굳건히 서 있기 를 스스로 원해야만 한다. 그는 이 계명이 그의 마음을 지키도록 허락해야만 한 다.” (하느님 아버지 / 2021년 7월 2일)

+ 성경 구절 독서 (마태 22:34-40)

- 제 10 계명 -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단지 몇몇 계명만이 아니라 열 개의 모든 계명에 다 순 종한다는 뜻이다. 제 10 계명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고 명한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제 6 계명과 제 7 계명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다. 다시 한 번 말하 지만, 이 순종은 마음속에 존재해야만 한다. 시샘은 세상에서 행동으로 나타나 기 전에 마음속에서 먼저 시작되기 때문이다. 나는 영혼이 다른 이의 재물에 대 해 감탄하는 것은 허락하지만, 다른 이의 소유물을 간절히 원하며 탐내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나의 안배는 각 영혼을 위한 나의 뜻에 따라 완벽하며 완전하다. 영혼에 대한 나의 신성한 뜻에 따라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은 각 영혼에게 달렸다. 세상 에서 많이 가진 이들은 적게 가진 이들과 함께 나누도록 부름 받았다. 이것이 내 가 가난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방식이다.”

“나의 계명들은 단지 구원을 위한 지침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계명들은 내가 돌에 새겨 넣은 율법으로, 영혼은 심판 때 이것을 협상할 수 없으며, 이에 책임을

저야 한다. 이 율법은 각 영혼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는다.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나는 나의 전능 안에서, 나의 율법에 대한 각 영혼의 응답을 지켜본다.” (하느님 아버지 / 2021년 7월 3일)

+ 성경 구절 독서 (마태 22:34-40)

결론

2021년 7월 5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이제 너희는 나의 계명들을 오롯이 다 알게 되었다. 나는 모든 세세한 사항들과 깊이를 너희에게 설명해 주었다.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 규칙들을 지키고 따르는 것은 너희에게 달렸다. 너희는 하루하루, 이 규칙들에 어떻게 순종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진리 안에서 살고, 회개하며, 그 단점들을 고치며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나의 계명들을 고수하는 것은 내가 사랑 안에서 너희를 부르고 또 가르친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더이상 단순히 의무적으로만 계명에 순종하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그렇게 하여라. 나는 이런 영혼에게 미소 짓고, 더욱 깊은 영적 여정을 위한 모든 은총을 그에게 베푼다. 나와 나의 계명들에 대한 사랑은 많은 호의로 보답된다. 나는 사랑하는 마음을 거절할 수가 없다.”

+ 성경 구절 독서 (1 요한 3:21-23)

2021년 7월 10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은 나에 대한 너희의 신뢰에 비례한다.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 깊을수록, 나의 계명들에 대한 너희의 사랑도 깊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나의 계명들을 지키기를 원할 것이다. 너희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너희 자신이 생각과 말과 행위로 각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하면서 각 계명의 깊이와 뉘앙스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내가 누구와 함께 나의 왕국을 누릴지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들 자

신이 나의 계명들에 대한 사랑을 통해 나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이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도록 부름 받았다.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버리고 아무런 타협 없이 나의 계명들에 순종할 수 있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나는 낙원의 나의 옥좌에서 각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 나의 두 팔은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이들까지도 안아주기 위해 열려 있다. 영혼이 해야 할 일은 다만 나의 자비에 의탁하는 것뿐이다.”

+ 성경 구절 독서 (1요한 3:21-24)

2021년 7월 12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 너희의 기도는 세상의 마음의 양심의 깨우침을 포함해야 한다.* 인류가 정확하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기 전까지는 인류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의로운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내가 인류에게 십계명을 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나의 모든 계명들에 대한 순종이 바로 세계 평화로 가는 열쇠다.”

“너희는 각 계명의 모든 뉘앙스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너희가 지상 삶을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다. 이 사실을 안다면, 이에 따라 살아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너희의 일상 생활에서 나의 계명들을 활발히 실천하여라.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 주변 이들에게 모범이 되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살라는 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골로 2:6-7)

*** 신성한 뜻 안에서 살기 위한 청원 기도**

“천상의 아버지, 세상이 위기에 처한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영혼들이 당신의 신성한 뜻 안에서 평화와 안전을 찾게 하소서. 각 영혼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당신의 뜻은 ‘현 순간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자애로우신 아버지, 각자의 양심을 비추시어, 자신이 어떻게 당신의 뜻 안에서 살지 못하는지를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은총과 시간을 온 세상에 허락하소서. 아멘.”

(하느님의 모후이신 마리아 / 2001년 9월 28일)

2021년 7월 13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많은 도로 지도들이 있다. 너희에게 주어진 도로 지도를 주의 깊게 따라가면 너희는 길을 잃지 않고 너희가 원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다. 천국에 도달하기 위한 지상의 영적 여정에서도 너희는 지도 곧, 여행 수단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목표를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이들이 마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나에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것처럼 부주의한 삶을 살아간다. 내세에 관해서는 거의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으며, 많은 이들이 심지어 천국이나 지옥 또는 연옥을 믿지도 않는다. 믿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이 메시지들은 구원의 길을 따라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 죄를 피함으로써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너희를 이끌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나는 일찍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 나의 아들을 지상에 보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내가 직접 와서 나의 자녀들이 진리와 의로움의 문을 통과하도록 이끌기 위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에게 말하고 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의 계명들에 순종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5:15-17)

2021년 7월 15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영원한 삶에 이르는 길은 나의 열 가지 계명 전부를 그 모든 세세한 사항들까지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십계명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그저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계명들은 너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지를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여라. 그러므로, 너희의 말투는 중상이나 비방 또는 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 없이 순수해야 한다. 생각과 말과 행위 안에서 다른 이에게 육체적인 해를 가하지 마라. 다른 이의 재산이든 아내든, 너희의 마음에서 모든 시샘을 없애라. 이런 시샘은 도둑질이나 심지어 살인으로까지 이어진다.”

“너희의 수호천사에게 귀를 기울이고, 너희가 성화로 나아가도록 그가 너희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라. 너희가 거룩한 사랑에서 이 모든 일을 하면, 너희는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며 언제나 진리 안에서 살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1 요한 3:18-24)

2021년 7월 16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영적 ‘집’은 과거의 죄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모래의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없다. 나의 자비를 믿어라. 나의 자비를 신뢰하여라. 오직 그때에만 비로소 너희는 더욱 깊은 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모든 것에 집중하여라. 나의 아들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길은 그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다.”

“논란의 수렁 속에 빠져 있는 지상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여라. 부도덕의 그림자가 내 아들이 교회의 성사들을 통해 베푸는 은총의 힘을 가리고 있다. 죄의 습관을 끊어버림으로써 너희의 영적 가정을 세워라. 모든 영적 집은 반드시 거룩한 사랑 곧,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지지하는 ‘반석’에 기초해 세워져야 한다. 이런 ‘가정’은 악의 쉬운 먹이감이 되지 않는다.”

“많은 이들에게 있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용서못함이다. 나의 자비를 본받아 모든 이에게, 심지어 너희 자신에게도,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이렇게 하면 너희의 거룩함의 집의 기초가 되는 돌들이 더 단단해진다. 이런 노력은 너희 자신의 마음과 너희의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히브 12:14)

2021년 7월 17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영적 ‘집’은 진리의 뜻으로 견고하게 된다. 거룩한 진리란 물론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말한다. 이 진리에 반대하는 모든 것은 너희의 영적 집을 파괴하기 시작한다. 진리의 타협은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이 몰래 들어올 때 시작된다. 아무리 작디작은 죄라 해도, 죄는 서서히 영적 집을 뜯어 해체시키는 바람과 같다.”

“이 집의 창문들은 지혜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천상적 지혜로서 영혼으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 집에 영적으로 해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창문들은 바깥 세상을 응시하기도 하지만 밖에서 안을 살필 수 있게도 한다. 창문들은 영혼이 따라가고 있는 길에 대한 분별력이다. 만약 영적 창문에 얼룩이 생기면, 영혼은 자신이 따라가고 있는 길을 보지 못하게 된다.”

“너희의 영적 집의 창문을 깨끗하게 닦는 세정제는 바로 매일의 양심 성찰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야고 3:13-18)

2021년 7월 23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예수가 자신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자신은 천국에 간다고 믿는 이들이 대단히 많다. 내 아들은 아름답고 완전한 수난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 그 문을 통과하는 자격을 얻는 것은 각 영혼에게 달렸다. 모든 이는 나의 계명들에 순종함으로써 이것을 달성할 수 있다. 이 말은 곧, 나를 만유 위에 사랑하라는 뜻이다. 이 사랑 안에서 영혼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낸다. 이 계명들은 낙원의 문을 자유롭게 통과하려고 드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장애물이 된다. 나의 모든 계명들은 돌에 새겨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이 계명들은 어느 하나도 타협될 수 없다.”

“슬프게도,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믿는다. 진리 안에서 사는 영혼들은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옹호하고 사탄의 거짓말을 드러내기 위해 이 성지에서 말하고 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계명들을 믿는 이들은 진리에 대한 사랑에서 순종할 것이다. 그들은 불에서 구해질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2 티모 4:1-5)

2021년 7월 30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악한 시대다. 사람들은 나의 전능보다 과학기술에 더 많은 믿음을 둔다. 최신 기술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그들을 추적하고, 그들의 소비 습관을 파악하며, ‘스마트폰’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만든다. 대대로 역사는 내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인류에게 책임을 묻는지를 서술한다. 그러나 이 진리는 인간이 나의 계명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존중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과학 기술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이 존중되고 있다.”

“나는 인간의 사랑을 원한다. 이것이 내가 이 메시지들을 통해 여전히 계속해서 인류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다. 너희가 사랑한다면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인간이) 나의 계명들을 모독할 때 나는 결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 나는 계속해서 영혼들을 회심으로 부른다. 너희 자신과 서로

를 용서하여라. 그런 다음, 나를 사랑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17:3-4)

2021년 8월 3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만약 너희가 다른 모든 메시지를 제외하고 오직 이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만 믿었다면, 너희는 여전히 구원을 받는다. 나는 너희에게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라고 말하고 있다. 거룩한 사랑은 가장 큰 두 계명 곧, 나를 만유 위에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다. 세상의 마음은 이 전제 조건으로 구원될 수 있다. 재앙적인 사건들도 피할 수 있는데, 나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 더 많은 질병과 유행병, 경제 위기와 심지어 정치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악의 지배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것들은 다만 세상의 유익이 나의 너그러움에 의존해야 하는 몇 가지 측면에 불과할 뿐이다.”

“거룩한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의 계명들을 전부 다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오늘날 나를 만유 위에 사랑하라는 첫 번째 조건은 전 세계에서 매 현 순간 모독되고 있다. 사랑하는 방식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이것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참사를 우회할 수 있다.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격변 직전에 놓여 있다. 거룩한 사랑에 의지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

+ 성경 구절 독서 (1 티모 4:1-2, 7-8)

2021년 8월 7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매일 아침 십계명을 복습하면서 계속해서 의로움의 길을 걸어가거라. 너희가 진심으로 십계명을 복습할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죄를 피하고 너희의 영성에서 취약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의로움의) 길에 머물러라. 이것은 나를 매우 기쁘게 한다.”

“나의 계명들을 숙지하지 못한 이들은 사탄이 그들의 삶 속에 침투하도록 허락한다. 그들은 적을 알아보거나 적이 그들의 일상 생활 속으로 침입하는 경로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내 여러가지 죄와 죄지를 기회가 일상이 되어 버린다. 나는 내 부성적 성심의 깊은 곳에서부터 각 영혼을 사랑하기에 영혼들이 끊임없이

노출되는 여러가지 위험에 대해 그들을 일깨우기를 원한다.”

“지나가는 세상이 너희를 새로운 유혹에 노출시키도록 허락하지 마라. 너희의 일과 즐거움, 그리고 우선사항들에 대한 지배권을 나에게 허락하여라. 너희가 순간 순간 내리는 결정이 나의 뜻과 하나가 되게 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골로 3:1-10)

2021년 8월 9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사탄은 사람들을 이용할 때 언제나 교묘하게 위장하기에 오직 분별력 있는 이들에게만 분명하게 보인다. 그자는 지식인인 것처럼, 내면이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한다. 그러나 그자의 진짜 목적은 언제나 영혼들을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데 있다. 나는 유력한 지식인들이나 사리사욕을 위해 밀어붙이는 태도나 어떤 겉모습에도 깊은 인상을 받지 않는다. 나는 오로지 마음만을 본다.”

“이 선교사업은 나의 인도 아래 있다. 나는 자신이 듣기 싫은 것은 모두 목살하거나 또는 이 메시지들 중에서 일부 메시지들만 골라 믿는 이들에게 상처를 받는다. 이것은 훌륭한 거룩함이 아니라 이기심일 뿐이다. 모든 이는 개인적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부름 받았다. 이 부름은 나의 계명들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부름이다. 나의 계명들이 너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영원한 파멸의 위험에 처해 있다.”

“너희 영혼의 ‘배’는 모든 계명들을 수용하는 거룩한 사랑에 의해 인도되는 것이지 배를 침몰시키며 기능을 망가뜨리는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 성경 구절 독서 (1 테살 2:13)

2021년 8월 19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에게 어떤 죄가 있든 너희 하나하나를 깊이 사랑한다. 나는 뉘우치는 이를 완전히 용서하는 나의 자비 안으로 계속해서 너희 모두를 부른다. 영혼이 뉘우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자신의 죄에 관한 진리를 인정하고 나의 사랑 가득한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 거짓의 왕자인 사탄은 진리를 숨김으로써 수많은 영혼들을 잘

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나의 계명들을* 존중하기는커녕, 계명들을 알거나 믿지도 않는다. 그들의 삶은 세상과, 사라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애착으로 가득 차 있다. 각 영혼은 나와, 나의 계명들에 대한 헌신을 통해 자신의 구원을 선택해야만 한다. 이와 다른 길은 모두 파멸로 이어진다.”

+ 성경 구절 독서 (1 요한 3:18-24)

2021년 8월 25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 하나하나 다 나의 걸작이다. 모든 영혼은 저마다 나의 선물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훗날 심판을 받을 때, 나는 각 영혼에게 그들이 뉘우치지 않은 모든 죄를 다 보여줄 것이다. 구원이나 영원한 파멸이나를 선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영혼 자신이다.”

“나의 계명들은 나의 뜻의 요약이자 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침이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 나는 각 영혼이 지상에서 살아갈 때 나의 신성한 뜻에 내맡기기를 기도한다. 그러면 그는 나와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다.”

+ 성경 구절 독서 (2 요한 1:6)

2021년 8월 27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여라. 현 순간 나에게 의탁하여라. 모든 영혼에게 있어 시간은 죽음의 순간에 끝이 난다. 그 순간에 영혼은 그의 영원한 안식처를 선택하게 된다. 영혼이 세상에 있었을 때 나를 사랑하는 쪽을 택하지 않았다면 심판의 순간 때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들 또한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대한 사랑에서 나를 기쁘게 해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의 낙원에 비할 만한 즐거움은 지상에 없다. 지상에서 나를 깊이 사랑하는 이들은 영원토록 나의 발치에 머무를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갈라 6:7-10)

2018년 9월 28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에게 나의 영 곧, 나의 성령인 나의 성심의 영을 주고 싶다. 나는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만 너희가 나의 뜻에 내 맡기도록 도울 수 있다. 나는 너희가 이 내맡김을 갈망하기 바란다. 이것은 나에게 무척 소중한데, 이는 나에게 대한 너희의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방법을 통해서 너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나는 너희가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를 보내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때, 그리고 특히 믿지 않는 이들을 대할 때, 이 영을 지니기를 원한다. 나의 성령은 너희가 나의 계명들을 충실히 지키고, 다른 이들도 너희의 모범을 따라 그렇게 하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너희를 돕는다… 매일 아침 다음의 기도를 바쳐라:”

신성한 뜻에 내맡기는 기도

“천상의 아버지, 저의 온 마음을 당신 성심의 영인 성령께 내맡기기를 갈망하나이다. 제가 다른 이들에게 당신 계명들에 대한 순종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루 종일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저는 당신의 뜻에 내맡기나이다. 아멘.”

* 십계명의 각 계명, 계명들에 대한 순종, 계명들을 거스르는 여러가지 죄, 그리고 천국과 지옥과 연옥에 관한 더 자세한 메시지들은 한국어 웹사이트의 ‘주제별 메시지’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holylovekorean.com/xs/subject>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Holy Love Ministries)

37137 Bitternut Ridge Rd. North Ridgeville, OH 44039

(영) 440-327-8006 www.holylove.org

(한) 440-657-0113 www.holylovekorean.com